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18

회차 , 새로운 탈출, 1부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새로운 탈출, 1부에 대한 세션 18입니다.

다음 몇 섹션에서는 새로운 탈출 또는 두 번째 탈출의 성경적 신학적 주제와 신약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그 용어를 보게 될 텐데, 같은 것을 말합니다. 때때로 두 번째 출애굽기는 하나 이상 또는 둘 이상을 의미할 수 있지만, 새로운 출애굽기와 두 번째 출애굽기는 모두 우리가 신약에서 발전시킨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신학적 주제를 포착합니다. 신약은 또한 구약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구약의 출애굽기 모티프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의 원래의 탈출과 그것이 어떻게 매우 간략하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탈출 모티브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약에 이미 있었던 두 번째 또는 새로운 탈출의 모델이나 패턴이 되었을까요? 그런 다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새로운 탈출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약의 이해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탈출이나 두 번째 탈출의 주제는 구원과 구속이라는 주제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고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논의한 여러 주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탈출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하고 구원하실 그의 백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그들을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그들이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근거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 관계를 수립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심으로써, 그가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 에 두실 관계를 맺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 새로운 출애굽기와 출애굽기는 이러한 주제들 중 여러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펴보고 발전시킨 다른 주제들과 관련하여 여기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엑소더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집트에서의 원래 엑소더스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새로운 엑소더스에 대한 예언적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탈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기초적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탈출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에서 보았듯이 원래의 창조 기록, 즉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백성, 그의 형상을 지닌 자로 창조되어 창조의 땅, 에덴 동산에 놓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응답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모든 창조물에 대한 그의 통치를 퍼뜨리고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땅에서 쫓겨났으며,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자신과의 관계로 회복시켜서,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어떻게 그들을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곳으로 데려오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창조와 인류에 대한 그의 의도를 회복하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결국에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에 도달할 때쯤에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유배되거나 적어도 이집트라는 외국에 가서 이집트인들에게 속박되고 노예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오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자신과의 관계로 회복시키고, 언약 관계를 맺고,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까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를 출애굽 사건으로 이끕니다.

탈출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외국의 억압과 예속으로부터 구출하고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인으로부터 구출하신 것은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로 절정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여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들 가운데 그의 성소와 거처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을 주목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넌 후 , 그들은 광야를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홍해를 건넌 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부른 노래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과 관련하여 읽은 17장과 18장에서 이 언급으로 끝납니다. 당신은 그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데려와서 심으리니, 흥미롭게도 에덴 동산 언어에 주목하세요. 당신의 상속 산에, 주께서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실 곳, 성소, 주여, 당신의 손이 굳건히 섰습니다. 주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거처, 그의 성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듯이, 출애굽기는 성전의 주제, 하나님의 왕국의 주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볼 때, 창세기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로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의 백성을 향한 그의 의도를 성취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모세는 그렇게 하기 위해 택하신 종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전에 출애굽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저는 단지 몇 가지 주제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주제가 구약의 나머지 부분과 신약에서도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앞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땅에 어둠이 닥치고 개구리가 나타나며, 물이 피처럼 붉어지고, 모기와 메뚜기와 상처가 생기고, 땅이 어두워지는 재앙을 아주 빨리 떠올립니다. 그 10가지 재앙, 몇 가지, 첫 번째는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들 각각은 이집트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의 신들이 난동을 부리고, 그들의 신들이 통제 불능이 되고, 그들의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는 아마도 이러한 재앙을 일종의 멸망 주제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구약 중간 시대의 작품 중 하나인 지혜서라는 책에서 실제로 탈출을 일종의 창조, 즉 마치 사물의 재창조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마도 10가지 재앙도 일종의 멸망, 즉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고, 사람들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출하고 구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땅과 그것을 다스리는 신들에 대한 이전의 창조에 대한 심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와 땅의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신의 퇴장을 준비하는 일종의 쇠퇴 모티브입니다.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출애굽은 구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은 구원하고, 신은 그의 백성을 외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고, 구약의 다른 곳과 신약의 구원 개념에 대한 중요한 배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성경적-신학적 신약 주제를 다룰 때 구원이라는 주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 출애굽과 관련하여 여러 번 언급할 것입니다.

따라서 탈출은 구속, 해방,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백성은 억압 아래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탈출은 해방 또는 구원, 백성을 속박의 상황에서 해방시키는 것, 특히 여기서는 외국의 압제자와 외국의 통치자에 대한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탈출의 주제가 구속과 백성의 해방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탈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온갖 다른 것들이 있지만, 저는 주로 신약에서 전개될 모티브에 관심이 있습니다. 탈출에 대해 말할 마지막 것은 그것이 의미하고, 어떤 의미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력한 행위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학이 분명히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신학은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 그의 백성을 위한 그의 구속적 역사적 행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침략하여 그의 백성을 구출하고 해방하기 위해 외국의 억압을 받는 역사의 맥락에서 역사에 개입하신 가장 중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역사에 개입하여 은혜롭게 그의 백성을 구출함으로써 그의 강력한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는 성경적 신학적 주제로서 신이라는 주제를 독점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앞으로도 독점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신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는 언약과 같은 주제를 논의할 때 말한 모든 것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권, 그의 은혜로운 행위, 그의 권능, 그의 왕권, 그의 주권, 그의 창조적 주도권과 권능, 그리고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려는 그의 의도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그 근저에 신 자신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신이 역사 속에서 행동하고, 그의 백성을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구출하고 개입하여 그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주도권을 잡는 것을 봅니다. 이 때문에 탈출은 아마도 신의 백성을 식별하는 기초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제 생각에, 그러면 탈출입니다.

구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탈출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신 것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읽은 후, 우리는 탈출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강력하게 구원하신 일의 패러다임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구약성경 전체에서 탈출을 반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명령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것은 종종 하나님의 다른 행위나 백성의 반응의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몇 장 뒤, 출애굽기 15장과 모세의 노래가 나온 후, 몇 장 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홍해와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신 후, 모세를 통해 언약 관계를 수립하심으로써, 우리가 종종 모세 언약 또는 히브리서에 따르면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하실 것임을 알게 됩니다.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백성이 따라야 할 명령과 그의 언약 관계의 규정을 제공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담고 있는 잘 알려진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1절과 2절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20장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노예의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십계명이 될 것입니다. 너는 나보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 하라 , 등등, 등등. 이제, 이것에 대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그는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그의 은혜로운 구원 행위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떻게든 그분 앞에서 행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은총을 얻고 받을 만하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의 명령은 그의 이전의 은혜로운 구원 행위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점은 출애굽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은 출애굽

사건이 열왕기 상 8장 5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갖는 중요성을 단순히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저는 단지 본문의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8장 51절, 저는 뒤로 물러나서 50절을 읽겠습니다. 당신께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당신께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며, 당신이 철로 녹이는 용광로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당신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한 것은 그들이 그가 이집트에서 속박에서 풀어준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26장 8절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힘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비참함과 수고와 압제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 다음 9절에서 그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탈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절정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기초적 사건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세우셨습니다.

다른 몇 가지 본문을 언급할 수 있다면, 시편에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초적 사건으로서의 탈출의 예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증거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돌아보고 기억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7장 11절에서 저는 주님의 행적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나는 옛날의 당신의 기적을 기억할 것입니다. 14, 15, 16절까지, 당신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강력한 팔로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후손을 구속합니다. 이는 출애굽을 언급하는 것이며, 구속의 언어를 주목하십시오. 물이 당신을 보고, 홍해가, 하나님이며, 물이 당신을 보고 꿈틀거립니다. 깊은 곳까지도 뒤흔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같은 시편의 19절에서, 당신의 길은 바다를 지나갔고, 당신의 길은 큰 물을 지나갔지만 당신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당신은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양 떼처럼 인도했습니다. 78 장, 바로 다음 장, 78:12과 13.

그는 이집트 땅, 소안 지방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는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물을 벽처럼 세우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시편입니다. 이러한 시편 중 다수는 종종 목록, 구약성경에 대한 일종의 조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는 목록입니다. 보통, 당신은 그 안에서 출애굽기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시편 66편 5절과 6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인류를 위한 그의 경외로운 행위들.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있다, 그는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걸어서 물 속을 지나간다, 와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자.

이 시편 대부분에서 바다가 말라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이 엑소더스에 대한 묘사의 핵심 특징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나중에 새로운 엑소더스나 두 번째 엑소더스를 살펴보면 그것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에서 또 다른 시편 105편과 2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이것은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놀라운 행위 때문에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의 놀라운 행위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2절.

그리고 23절부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들어갔다. 야곱은 함의 땅에서 외국인으로 거주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번성하게 했다.

그는 그들의 적들보다 그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로 돌아가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그의 백성을 미워하고 그의 종들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가 택한 아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표적을 행하고, 함의 손에서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한다. 그는 어둠을 보내어 땅을 어둡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의 말씀에 반항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그들의 물을 피로 바꾸어 그들의 물고기를 죽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땅은 개구리로 가득했습니다. 재앙에 대한 모든 언급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3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의 모든 맏아들, 그들의 첫 열매인 남자다움을 쳐부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은과 금으로 가득 채워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그들이 떠났을 때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의 길이, 즉 출애굽에 할애된 공간의 길이에 주목하세요. 하지만 한 구절 더 넘어갈 수 있다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성서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전개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애굽을 기초적인 사건으로,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하신 위대한 행위로 조사하거나 상기시키는 예언적 본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1절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기도와 21절의 맥락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2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집트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재앙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 계속하셨고, 여전히 당신의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당신은 표적과 기사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큰 공포로 강한 손과 뻗은 팔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1장도 살펴보겠습니다 . 이사야서는 새로운 출애굽기나 두 번째 출애굽기의 주제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책일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11장 15절과 16절에서 주님은 이집트해만을 말리실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그는 유프라테스 강을 휘두르며 일곱 갈래로 갈라 누구든지 샌들을 신고 건너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아시리아에서 남은 그의 백성을 위한 대로가 있을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에서 이미 주목하세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왔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다시 행하실 방법에 대한 모델로서 첫 번째 탈출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호세아서 11장 1절,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도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그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서 11장에서 우리는 그 주변 구절에서 다시 한 번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회상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은 이제 이집트에서 구출되거나 구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는 다른 수많은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 일부를 샘플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후기 역사에서, 시편에서 예언적 본문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탈출기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속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기초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힘과 권능, 뽀은 팔로 그의 백성을 노예와 억압에서 구출하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언급했듯이, 특히 예언서 본문에서,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본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탈출이 하나님,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하는 방법의 패러다임이 되는 개념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기초적 사건은 그가 구출하고 구출한 것이며, 새로운 또는 더 큰 탈출에 대한 예언적 기대의 모델 또는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에서 발견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미래에 구출하는 것을 묘사하는 가장 특징적인 방식 중 하나가 첫 번째 탈출을 본떠 만든 두 번째 또는 새로운 또는 더 큰 탈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과 속박에서 구출하고 구원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유형학이나 비유의 언어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억압과 속박에서 구출하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유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유배되거나 유배 중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 그 유배를 생각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유배를 갔을 때, 그보다 조금 후에 남쪽 유다도 유배를 갔고, 그 유배 기간은 억압이나 고통의 기간으로 여겨졌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출애굽에서 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을 다시 한 번 구속하고 구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관성이 단순한 비유나 유사성 이상일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첫 번째 출애굽은 다시 일어날 일에 대한 비유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출애굽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을 어떻게 다시 구출하실지에 대한 유형론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과 심지어 역사 문헌에서 보았듯이, 탈출은 매우 중요해져서 선지자들은 이제 미래의 구원, 탈출 언어와 탈출 용어로 유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출되는 미래를 구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선지자들의 여러 본문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예레미야서의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일부 소선지서도 포함됩니다. 아마도 에스겔서에서도, 심지어 36장, 48장 전체에서도 이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들을 땅으로 데려오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처를 세우는 움직임은 40~48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패턴은 다시 회복, 구출, 회복, 창조의 출애굽기 패턴이며, 그런 다음 그들에게 땅을 주고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확립된 패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모세의 노래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유배에서의 귀환, 유배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구출을 묘사하는 구약의 예언적 텍스트는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 이사야서일 것입니다. 특히 40장부터 55장까지입니다. 이사야가 출애굽을 사용한 문제나 이사야의 새로운 출애굽 모티프 또는 새로운 출애굽 주제를 다루는 기사와 책의 섹션 형태로 많은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의 새로운 출애굽 주제가 출애굽 모티브를 전개하는 신약의 여러 본문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죄송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다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이스라엘이 유배 생활을 하는 상황을 다루고, 유배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을 거듭해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 개입,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로 그의 백성을 유배 생활에서 구출하고, 그들을 땅으로 다시 데려오려는 그의 의도를 출애굽의 용어로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본문을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저는 그 중 일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 모티브를 신약에서 사용하는 것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해하는 이사야의 이해를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읽고 논평할 이 텍스트들 중 몇몇은 실제로 신약
자체에서 몇 번 나오는 텍스트입니다. 시작점은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 부드럽게 말하고, 그녀의 힘든 봉사가
끝났고, 그녀의 죄가 지불되었으며, 그녀가 모든 죄에 대해 주님의 손에서
두 배로 받았다고 선포하라.

광야에서 부르는 한 사람의 음성이 주의 길을 예비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에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거친 땅이 평평해지고, 울퉁불퉁한 곳이 평지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그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중요한 본문이지만, 많은
탈출 주제와 공명하며, 사람들이 유배에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새로운 탈출로 묘사하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인도해
내신 원래의 탈출의 성취입니다. 저는 42장 15절에서 16절까지 여러
구절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나는 산과 언덕을 황폐하게 하고, 모든 초목을
말릴 것입니다.

나는 강을 섬으로 만들고 못을 말릴 것이다. 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눈먼 자들을 인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나는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매끈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을 말리고 연못을 말리고, 다시 그들이 건너와 그들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서 숙박되어 유배 생활을 마치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4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개입하여 그들을 유배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분, 큰 물 가운데 길을 만드신 분. 이는 하나님과 홍해의 일부, 그리고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간 최초의 탈출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17절, 병거와 말, 군대와 증원군을 모두 끌어내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고, 꺼지고, 심지처럼 꺼져 버렸습니다. 파라오 군대의 멸망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계속해서 이전의 일들을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것이 솟아나온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황무지에 개울을 만든다. 이제 다시 주목하라. 흥미롭게도,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모든 기록을 불러낸 후에 저자가 그들에게 탈출을 기억하고, 회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제 저자는 그런 것들을 잊으라고 말한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것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다시는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첫 번째 탈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이 새로운 탈출을 대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 파라오의 군대를 진압하신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새로운 탈출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1장,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51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유배에서 구출하고 구속하고 땅으로 회복하시는 맥락에서, 그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의 팔이여라고 말합니다.

시편과 다른 곳에서 읽은 구절 중 하나님의 뻗은 팔, 하나님의 강력한 팔을 언급한 구절을 주목하세요. 깨어나세요, 주님의 깨어나신 팔이여, 힘을 입어라. 지난날과 같이, 옛 세대와 같이 깨어나세요.

그는 어떤 날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 어떤 세대들을? 라합을 산산이 쪼개고 그 괴물을 찢러 죽인 자가 당신이 아니었을까? 바다를 말리고 큰 깊은 물을 말리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한 자가 당신이 아니었을까? 주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돌아올 것이요, 그들은 노래하며 시온에 들어갈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을 것이요,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슬픔과 탄식은 달아날 것이요. 그러므로 저자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그의 팔과 힘을 깨우시라고 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 탈출에서 백성을 구원했던 것과 같은 팔과 힘입니다. 이제 그는 다시 행동하고, 첫 번째 탈출을 본떠 새로운 탈출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는 바다를 말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은유적인 바다입니다.

라합과의 연관성을 주목하세요. 라합은 일종의 상징적 악의 괴물입니다. 이사야 51장의 아람어 의역인 이사야 타르굼은 실제로 라합을 부릅니다. 라합은 다시 용, 짐승, 뱀 유형의 인물, 악과 혼돈을 상징하는 짐승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괴물이었습니다. 이사야 타르굼은 실제로 라합을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다는 위협적이고 해로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과 압제와 죽음을 피해 그들의 땅으로 건너가는 데에 장벽이 되었고,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저자는 하나님의 강력한 팔과 힘이 파라오로부터의 첫 번째 탈출에서 그들을 구출하고 바다가 다시 한번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새로운 탈출을 구상합니다. 이제, 제가 말했듯이,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여러 본문과 다른 예언적 본문이 있지만, 저는 이것이 구약성경에서 새로운 탈출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가장 흔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유배에서 구출하실 미래의 일이 이제 첫 번째 탈출의 패턴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아마도 유형적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탈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더 큰 구원 행위,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새로운 행위, 새로운 탈출로 유배에서 구출하실 더 큰 탈출을 예상하는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제, 이것은 또한 우리가 신약 증거로 넘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탈출, 원래의 탈출, 특히 이 신약이나 이 새로운 탈출 모티브, 특히 이사야에서 유래하는지 보여주기 전에 잠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해야 할 것은 탈출 모티브가 죄와 유배라는 더 광범위한 주제에도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죄라는 주제가 유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창조, 죄, 유배, 회복의 패턴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에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를 지으시고,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시작되는 회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재창조하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들이 더 나은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고, 그들도 땅에서 추방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그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배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유배 중이며, 죄악으로 인해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배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배제, 언약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가 살펴본 구약의 예언적 본문에서 유배에서의 구출은 새로운 탈출로 생각됩니다. 회복은 새로운 창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새로운 탈출이 우리가 보는 이 죄, 유배, 회복 모티브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속박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이집트로 유배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회복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 때문에 유배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새로운 탈출 행위로 회복하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고, 사도행전을 간단히 살펴보고, 바울 문헌을 살펴보고, 바울 외의 다른 텍스트 몇 개를 살펴보고, 요한 계시록으로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탈출 모티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정경 순서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저는 텍스트 샘플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상당히 명확하거나 새로운 탈출 모티브가 텍스트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언급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집중하겠습니다. 따라서 탈출이나 새로운 탈출 모티브의 신약성서적 전개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보다 새로운 탈출 모티브를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많이 전개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이미 이 구절을

읽게 되지만, 1장 1절에서 저자는 마치 마태복음을 이스라엘 이야기의 결론으로 읽게 하거나, 거의 이스라엘 이야기의 요약으로 읽게 하거나, 적어도 이스라엘 이야기와 연관해서 읽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제 완성하고 성취하실 구약성서 이야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실제로 발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 구약성서 본문을 언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히 여러 개를 인용했지만, 저는 그가 몇 개 더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태가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묘사하기 위해 자신의 서사에 엮어 넣은 모든 구약성경 암시, 인용문, 이야기들 가운데, 그 중 하나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는 예수가 특히 두 가지로 묘사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태가 하는 일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들이 때때로 주장하듯이 지배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일종의 새로운 모세인 듯합니다.

마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중 하나는 예수가 2장에서 새로운 모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에 대한 암시가 마태복음 1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아기 예수의 이름을 지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자기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누군가가 그에게 전적으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NT 라이트는 적어도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 1세기의 일부 유대인 작가들이 자신들이 여전히 유배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그의 백성을 유배에서 구출할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국의 억압보다 훨씬 더 나쁜 유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속박의 유배입니다. 이제 예수는 그의 백성을 구출하고 모세가 한

일을 할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때입니다. 이제 그는 그들을 유배에서 구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장에서, 그의 백성을 유배에서 구출할 자, 모세와 같은 구출자 또는 구세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우리는 예수가 다른 모세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른 왕, 악하고 억압적인 왕, 헤롯의 한가운데서 구출된 자입니다. 헤롯은 파라오와 매우 비슷하게, 예수를 확실히 잡기 위해 두 살 이하의 모든 아기 남자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헤롯은 예수를 자신의 왕좌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과 주변 지역에서 두 살 이하의 모든 아기 남자아이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이 언급은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파라오가 저지른 동일한 행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에는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언급이 있습니다. 헤롯이 죽었을 때,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일어나서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이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구절이네요. 그 언어는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위해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서 그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두려워서 도망쳤던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자들은 죽었다는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바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세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을 암시하여 예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배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주제 중 하나는 새로운 모세, 그의 백성을 구출하고 구원할 모세 유형의 구원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 새로운 모세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12절

이하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일어나서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헤롯이 그 아이를 찾아 죽일 테니까.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밤에 그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15 절입니다.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나중에 19절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이집트로의 이 이동과 이집트에서의 이동은 2장 15 절의 구약 본문을 성취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인도된 역사를 요약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저자는 새로운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구조화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모세와 같은 구원자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 자신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것을 체현하는 것으로,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것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탈출에서 행동하여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탈출에서 그들을 유배에서 구출할 것입니다. 잠깐 멈추어 마태복음 2장 15절의 흥미로운 인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의 어려움은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읽을 때 그 본문을 읽을 때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구절에서는 이것이 예언이나 예측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록인 듯하고 ,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탈출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설명인 듯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나는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2절, 그러나 그들이 더 많이 불릴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더 멀리 떠났다. 그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향을 피웠다. 에브라임에게 걷는 법을 가르친 것은 나였고, 그들의 팔을 잡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단순한 역사적 묘사인 듯하지만,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문제는 마태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리고 왜 마태가 그렇게 하는가입니다. 이 본문이 예언적인 본문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가? 글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4장을 읽을 때, 사실 3장의 끝, 예수의 세례, 마태복음 3장의 끝, 예수의 세례, 그리고 4장 1-11절, 예수의 유혹을 읽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다윗의 글인 이사야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4장 1-11절에서 아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는 광야로 인도되었고 사탄의 첫 두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진정으로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저항하지만, 요점은 무엇보다도 마태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체현하고 요약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들이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출애굽기 4:22, 23, 언젠가 찾아보세요. 우리는 이전에 그것을 읽었지만, 이스라엘이 아들이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목적과 운명을 성취하는 더 큰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은 예수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들이었던 의미에서 , 이제 우리는 더 큰 아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서의 맥락 안에서도, 10장과 11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들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사실, 제가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 나는 맹렬한 분노를 행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들의 성읍을 치러 오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여호와를 따를 것이니라.

그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릴 것이다. 그가 으르렁거릴 때, 그의 자녀들은 서쪽에서 떨어져 올 것이다. 그들은 애굽에서 참새처럼 떨어져, 아시리아에서 비둘기처럼 펄럭이며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정착시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호세아서 11장 10절과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것과 유추하여 미래의 구출과 회복을 예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자체는 첫 번째 구출을 본떠한 새로운 탈출에 대한 언급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 새로운 탈출을 가져오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목적과 운명을 구현하는 참된 아들이고, 호세아서 11장에서 약속된 그 새로운 탈출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구체적이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새로운 모세 유형의 인물로 묘사되지만, 그는 새로운 탈출을 가져오는 다른 본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특히 예언 문학에서 새로운 탈출의 성취로 여겨지는 구원을 가져오지만,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구출하신 첫 번째 탈출을 반복하거나 요약합니다. 마가복음은 아마도 또 다른 책일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전체 책입니다.

이것이 지배적인 주제인지 아닌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확실히 마가복음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예수께서 가져오는 구원이 새로운 탈출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의 신약학 교수인 한 작가는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새로운 탈출을 성취한 것으로 제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마가복음으로 작업하는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그는 마가복음으로 작업하고 마가복음의 핵심 본문과 장소가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이사야 장 섹션과 구절을 모델로 하거나 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새로운 탈출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시작점은 책의 맨 처음에 있는데, 이는 책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텍스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탈출의 맥락에서입니다. 나는 내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리니, 그는 너희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부르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위해 곧은 길을 만들라. 말라기서 3장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지만, 이사야서 40장 3절, 우리가 앞서 읽은 이사야의 신약 본문 또는 새로운 탈출 본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도 예수님을 성취하고, 새로운 탈출을 가져오고, 새로운 탈출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구출하는 것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이사야가 새로운 탈출을 기대했던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다음 세그먼트에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탈출 사건을 가리키는 다른 몇 가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바울의 서신과 나머지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탈출 모티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탈출에 대한 세션 18, 1부입니다.